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출산의향, 2010-2020

임재연

초록

한국 사회의 급격한 가족 구조 변동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 그것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3-8차 자료를 활용한 성장곡선모형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패널 확률효과 모형으로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의 세 변수로 요약되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탈전통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교육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여성들에 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향을 가지고, 결혼 제도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며, 결혼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가치관은 여성들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 태도, 그리고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결혼이 전제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개방적 태도는 모두 높은 출산 의향과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에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그 변화 역시 일관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 결과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 가족 변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저출산에 대응하는 일련의 노력에 변화하는 가족가치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결혼에 대한 비전통적 태도가 높은 출산 의향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가족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출산 의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한국 여성, 가족가치관, 출산 의향, 여성가족패널, 성장곡선모형

I.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청년들의 만혼화는 지난 20년간 점점 심화되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4세가 되었으며(통계청, 2022),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해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문화적 담론 역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다.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취업, 인간관계, 그리고 꿈마저 포기한다는 ‘N포세대’ 담론이 확산된 지 오래이며,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비혼’은 이제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혼한 뒤 다시 싱글이 된 ‘돌싱’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편,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합을 거부하고 동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안적 가족을 모색해나가는 시도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의 이면에는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추락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였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가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자녀 양육의 부담과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였다(김영란 외, 2021). 이는 오늘날의 가족 변동이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경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족가치관은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및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며(이삼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이러한 영향은 점점 증가해왔다(배혜원, 2017). 또한 가족가치관이 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보고되고 있다(홍성희, 2020; 임병인·서혜림, 2021; 임재연, 2021). 이러한 연구들이 지시하듯,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행태의 변화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서로 조용하며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가치관이 가족 행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임에도,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가족가치관의 시간적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연구는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반면(은기수·이윤석, 2005; 미사에, 2021)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포착하고자 한 시도는 매우 드물다. 시간적 변화에 주목하더라도 두 시점의 횡단면자료를 활용한 간단한 분석에 머무는 경우가 전부였다(호정화, 2014; 유계숙 외, 2018). 이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을 가치관의 차원과 엮어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변화는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시간성을 고려한 학술적 설명은 없어, 시간성을 내포한 변화를 고정된 시점의 설명틀로 풀어내야만 하는 현상과 설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 그 영향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 오늘날의 가족 변동에 대한 완결적 이해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가? 어떤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더 크게 변화하였는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출산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3-8차 웨이브(2010-2020)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의향에 대한 종단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가치관 잠재변수를 생성한다. 둘째, 성장곡선모형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변화해 온

제적과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검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족 구조 변동과 저출산을 설명하는 유용한 학술적 자원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경험적 논의

1. 한국 사회의 가족과 가족가치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복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의식을 함께하는 생활의 기본적 단위이자, 일정한 가치 체계가 공유되는 의미 공동체이자, 개개인 간 사적 친밀성이 오가는 정서적 테두리이다. 또한 가족은 부의 축적 및 사회적 성공의 뒷받침 수단으로서 한국인의 삶의 경로를 크게 좌우한다. 이처럼 개별 구성원들의 삶에 밀접한 의미를 가지는 가족은 큰 사회적,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가족의 이론적 의미를 정리한 장경섭(2009)은 가족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은 특정한 행위 논리에 따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조합적 행위체(corporate actor)이다. 둘째, 가족은 출산, 부양, 사회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이다. 셋째, 가족은 사회적 통제기제(control mechanism)로, 개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집단의 지배 과정에 활용된다. 넷째, 가족은 세대와 젠더의 경쟁, 협력, 지배 등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사회정치적 장(sociopolitical arena)이다. 다섯째, 가족은 사회관계에 대한 관습적, 제도적 규정을 담고 있는 사회 이념(social ideology)이며,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이다. 여섯째, 가족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형성, 축소, 사멸 등의 과정을 거치는 사회조직(social organiza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사회제도, 통제기제로서 가족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정치경제적 단위로 받아들여지며 국가 통치의 근간을 이뤄왔다. 조선시대부터 가(家)는 호적의 기본 단위로, 군역과 부세를 통해 국가의 체제와 이념적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로 여겨졌다(박경숙, 2022).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의 부계중심적 가족 제도가 ‘관습’의 형태로 가족법의 원칙에 받아들여졌다(양현아, 2000). 통치와 생활의 단위로서 가족의 기본적 성격과 이를 둘러싼 유교적 이념은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범규의 형태로 재탄생하여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에는 부계혈연 계승 단위로서 가족의 성격은 약화되는 한편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가족 개념이 등장하였다(김혜경·정진성, 2001). 즉, 일제 치하에서는 국가 통치를 위한 효과적 단위로서 가족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미시적 기초로서 자리하며, 과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 호명되었다(장경섭, 2009).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개발주의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가족계획사업’의 통제 대상으로 존재하였으며,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종의 도구로 여겨졌다(배은경, 2012). 정리하자면, 수많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며 효율적 국가 통치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단위로서 ‘가족’은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유착되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를 미시적으로 지탱해 왔던 가족은 근래에 들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 지연, 거부, 그리고 전례 없는 저출산의 심화 및 장기화는 2020년대 한국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들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출산율 감소가 결혼 지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확인되면서(전광희, 2003),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원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결혼 지연에 관한 많은 연구는 결혼의 계층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즉, 결혼을 통해 계층 상승을 꾀하는 상향혼(hypergamy)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Jones, 2007) 1990년대 경제위기로 남성들의 결혼 기회가 크게 계층화되어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가정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혼 시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박경숙 외, 2005). 또한 최근에는 결혼 시기에 있어 계층 격차가 미치는 이러한 영향이 부모 자산과 같은 귀속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권오재, 2017).

가족 행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가족가치관(family values)’은 결혼, 이혼, 동거, 출산, 성 역할 등 가족 제도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은기수, 2006; 임재연, 2021). 앞서 논의한 가족의 이론적 성격의 구분에 준할 때, 이는 가족의 사회이념적 차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관찰되는 가족 행태의 변화가 가족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현상임을 지적한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가족가치관은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드러났으며(이삼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이러한 가치관과 행태의 연관은 점점 커져 왔다(배혜원, 2017). 또한 청년들의 자녀 출산 의향 역시 그들의 가족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보고되었다(임재연,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족가치관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구조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 주목한다. 즉, 결혼 지연, 비혼, 저출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족의 위기’를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최근의 급격한 가족 행태 변동과 관련하여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물질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는 잦은 데 반해, 가치관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일련의 연구가 지시하듯이, 가족가치관은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또한, 점점 더 두드러지는 가족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청된다. 장경섭(2001)은 한국의 가족이념이 같은 시대·공간 내에서도 이질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가족 실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가치관 ‘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의 동시적 이질성과 통시적 변화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2. 한국 여성의 생애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한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시대와 개인을 가로지르는 이질성을 보인다. 먼저 가족가치관은 사회의 구조 변동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가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사회조사에서는 조사년도에 따라 차이가 발견된다(장경섭, 2001; 배혜원, 2017; 임재연, 2021). 이러한 차이는 가족가치관의 통시적 변화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또한,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구성원이더라도 서로 다른 가족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동시적 이질성은 가족주의(familism)가 매우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데, 한국의 경우 매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어

오는 과정에서 유교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이 동시대 안에 우발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장경섭, 2001). 즉, 한국 사회가 걸어온 고유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가족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적 변화와 내적 이질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질성을 보이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생애과정 접근(Life Course Perspective)을 취한다. 생애과정 접근은 개인의 삶이 가지는 역사적, 일대기적(biographical) 흐름을 고려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개인의 삶을 사회의 맥락에 위치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삶은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제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모양지어지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루는 코호트(cohort)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삶의 이른 시기에 겪는 전환(transition)은 이후의 삶의 궤적(trajjectory)에서도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Elder et al., 2003). 이러한 생애과정 접근에 따라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 변화를 사회변동과 연결 지어볼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노동시장 참여 증대 등의 변화를 불러오며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Choe, 2006). 특히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성물이다(최선영·장경섭, 2004). 한국 여성들의 역사사회적 생애는 가정과 일터에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는데, 배은경(2009)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을 토대로 한 근대적 보상체계가 흐트러지는 과정에서 ‘한국 여성’이라는 단일한 집합성이 해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 취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기혼 여성의 생애가 취업 경험 및 경로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상대적 구성은 결혼코호트,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보고되었다(박경숙·김영혜, 2003).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가정과 일터에서 성별화된 갈등에 대처하는 여성들의 대응이 계층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김이선·박경숙, 2019).

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여성들의 생애가 변화하는 와중, 가족가치관도 변화해 왔다. 우선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2000년대 이후 탈(脫)전통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으며(배혜원, 2017; 이소영 외, 2018), 가족 내 자율성과 평등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유계숙 외, 2018). 그런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단순히 ‘탈전통화’로 명명하기에는 훨씬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문선희(2012)의 연구는 미혼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에 변화와 혼재가 동시에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민아(2013)는 한국에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개인중심적 가치관과 경합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증폭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가치의 이러한 변형과 지속은 가족가치관의 일부인 성 역할 관념에서도 관찰된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허은(2017)은 여성들의 성 역할 관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왔지만, 여러 복합적 태도가 존재하기에 적극적으로 거부되어 온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미사에(2021)의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역시 성 역할 규범의 변화가 전통에서 평등으로 단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여러 논의들을 참조할 때, 가족가치관의 변화 양상은 하나의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성을 보이면서도,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탈전통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탈전통화되었을 것이라** 예측해본다(가설 1-1).

가치관의 시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이질성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표적으

로 출생코호트가 가족가치관의 탈전통화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여러 시점의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가족가치관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호정화, 2014; 유계숙 외, 2018; 임재연, 2021)과 기혼 여성의 가치관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김경자, 2016)는 모두 가족가치관의 탈전통화가 최근의 출생코호트에서 두드러짐을 보고한다. 또한 교육수준 역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미사에(2021)의 연구에서 대학 교육 여부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에 있어 차이를 낳는 요인이었다. 허은(2017)의 연구에서도 고학력 여성일수록 성별 분업에는 반대하면서 전통적 어머니 역할에는 동조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가족가치관의 변화에서는 그 방향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내부의 이질성 역시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의 분포와 변화궤적 모두 교육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 예측한다(가설 1-2).

3. 가족가치관과 출산 의향

출산 의향(fertility intention)이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의사나 계획을 나타낸다. 출산 의향이 이론적, 학술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 등장하면서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주창한 Ajzen(1991)은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그리고 행위자가 인지하는 행위의 통제 가능성(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 의향(intention)을 형성하고, 의향은 다시 통제 가능성과 함께 실제 행위를 만들어낸다고 이론화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 더 정교화 되는데, 출산에 대한 ‘T-D-I-B(Traits-Desire-Intention-Behavior)’ 이론은 출산의 실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와 인식의 과정을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먼저 출산에 대한 동기적 특질(motivational trait)은 아이들 및 돌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뜻한다. 이러한 특질이 실현되어 나타나는 출산 욕구(desire)는 희망하는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출산 의향은 출산 욕구에 현실적 상황 및 제약이 반영된 계획을 뜻한다(Miller et al., 2004).

위에서 논한 두 가지 이론은 모두 출산이 개인의 태도 혹은 욕구라는 인지적 측면과 현실적 가능성의 측면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이며, 그 과정에는 구체적 계획 단계인 ‘의향’ 이 놓여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출산 의향은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의 출산에 대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자의 인식에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가치관이나 태도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가령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당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1년 이내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 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는 드러내는 바가 다르다. 전자는 자녀 가치관을, 후자는 출산 의향을 지시하며, 이 둘은 각 행위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요건에 따라 비슷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출산 의향은 앞서 욕구-의향-행위의 연쇄에서 출산 욕구가 출산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촉진 혹은 제약하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현 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의 맥락에서는 출산 자체보다도 그에 선행하는 의향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국내외 연구들은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 출산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왔다(Yeatman et al., 2013; Cleland et al., 2020; 신윤정 외, 2020). 또한 한국에서는 출산 의향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Yi et al., 2020; 임병인·서혜림, 2021).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과 가족가치관 등이 지목되어 왔다. 정책의

경우, 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 등 양육 지원정책은 일하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Choi et al., 2018; Kim & Parish, 2020).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먼저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김석호, 2022), 가치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윤석 외, 2016). 실제로 홍성희(2020)는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결혼을 중시하거나 동거에 수용적인 태도는 무자녀 성인의 출산 의향에 기여하였다. 비슷하게 임재연(2021)은 한국 청년들의 가족가치관이 여러 이질적 유형으로 분화되며, 개인주의적 평등을 지향하는 가족가치관이 낮은 출산 의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 임병인과 서혜림(2021)은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의 혼인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살펴보았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자녀,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출산 의향을 높였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그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성별 분업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출산 의향과 정(+)의 관계를, 양육 책임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참조하여 이 연구는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가설 2-1) 그 양상은 가족가치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가설 2-2).

III.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3-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입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조사로, 2007년 1차 조사 이후 2008년 2차 웨이브부터 격년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2022년인 현재 2020년 8차 웨이브까지 제공되고 있다. 출산 의향에 대한 문항은 1-8차 웨이브에 일관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가족가치관에 대한 문항들은 다수가 3차 웨이브부터 추가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3차 이상의 웨이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가족가치관의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에서 패널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3-8차 웨이브에 모두 포함된 개인들만을 추려내어 구성된 균형 패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 활용된 관측치는 32,412개, 패널개체(개인)는 5,402명이다. 물론 이와 같이 균형 패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나, 이 문제는 패널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보다는 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균형 패널을 채택하였다. 자료의 전처리 및 분석에는 통계 패키지 Stata 17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가치관 잠재 변수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앞선 분석에서 구성한 가족가치관을 종속변수로 삼는 성장곡선모형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변화해 온 궤적을 교육수준과 코호트별로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그들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확인한다. 각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논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가치관을 변수로 정리한다. 분석에 활용된 문항들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3-8차 웨이브에 모두 포함된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 10개가 활용되었으며, 모든 문항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 ‘조금 그렇다(2)’, ‘별로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이다. 문항의 내용을 토대로 분류해보

<표 1> 가족가치관 요인분석에 활용된 문항들

분류	번호	문항내용
결혼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자녀	3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4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	5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6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7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개인의 행복과 결혼	8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9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10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

자면, ‘결혼’, ‘자녀’,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 ‘개인의 행복과 결혼’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항들의 신뢰도(reliability) 계수는 0.67, KMO는 0.72였으며,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추정 방식으로는 ML을 택했으며, 비직각회전인 ‘promax’ 방식으로 요인축을 회전시켰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와 스크리도표(screplot)를 모두 참조해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들을 묶어 잠재요인(latent factor)을 설정하고, 요인점수(factor scale)를 활용하여 세 가지 가족가치관 변수를 생성하였다. 예측된 가족가치관 변수들은 모두 수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을 의미하도록 방향성을 통일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변화해온 궤적과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 성장곡선모형은 다층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다층모형 접근 방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성장곡선모형은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¹⁾

1) 모형 명세화 과정에 등장하는 수식은 민인식·최필선(2021)의 16장과 강상진(2016)의 5장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수준 모형:

$$FAMVAL_{ij} = \alpha_{0j} + \alpha_{1j}T + \alpha_{2j}T^2 + e_{ij}, \quad e_{ij} \sim N(0, \sigma^2) \quad \dots (1)$$

2-수준 모형:

$$\begin{aligned} \alpha_{0j} &= \beta_{00} + \beta_{01}(education) + \gamma_{0j} \\ \alpha_{1j} &= \beta_{10} + \beta_{11}(education) + \gamma_{1j} \\ \alpha_{2j} &= \beta_{20} + \beta_{21}(education) + \gamma_{2j} \end{aligned} \quad \dots (2)$$

$$\begin{bmatrix} \gamma_{0j} \\ \gamma_{1j} \\ \gamma_{2j} \end{bmatrix} \sim N \left(\begin{bmatrix} \gamma_{0j} \\ \gamma_{1j} \\ \gamma_{2j} \end{bmatrix}, \begin{bmatrix} \tau_{00}, \tau_{01}, \tau_{02} \\ \tau_{10}, \tau_{11}, \tau_{12} \\ \tau_{20}, \tau_{21}, \tau_{22} \end{bmatrix} \right)$$

다층모형은 기본적으로 하위레벨 변수가 상위레벨 변수에 내재되어(nested) 있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패널 데이터 역시 관측시점을 1-수준 변수로, 패널개체를 2-수준 변수로 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을 나누어 수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i 는 관측시점을, j 는 패널개체인 여성 개인을 나타낸다. 수식 (1)에서 $FAMVAL_{ij}$ 는 종속변수인 가족가치관이다. 앞선 1절의 요인분석으로 생성한 가족가치관 잠재변수를 활용하였다. T 는 시간변수를 나타내며, 총 6개의 웨이브가 활용되므로 $T=1, 2, \dots, 6$ 이다. 본 연구는 시간에 대한 비선형 모형을 가정하는데, 따라서 시간의 1차항과 2차항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의 궤적을 곡선(curvilinear) 모형으로 상정한 이유는 그것이 선형 모형을 채택할 경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내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²⁾ α_{0j} 는 개인별 상수를, α_{1j} 와 α_{2j} 는 개개인의 특성에 영향 받는 시간변수의 기울기를, e_{ij}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수식 (1)의 α_{0j} , α_{1j} , α_{2j} 를 수식 (2)와 같이 상위레벨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식으로 풀어서 작성할 수 있다. 설명변수는 교육수준이며, 시불변(time-invariant) 변수이다. 모델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제시된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해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다음의 두 이유로 확률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 첫째,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모집단에서 확률적으로 추출된 표본인 경우, 개체 고유의 오차항이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가능해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절한 모형이 될 수 있는데(민인식·최필선, 2022),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 역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층화계층추출을 활용하였기에 이 조건을 일부 충족한다. 둘째,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의 시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 간 차이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확률효과 모형이 더욱 적합하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할 경우 개인 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학적으로는 개체의 고유 특성과 독립변수 간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추정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Clark & Linzer, 2015).

2) 시간의 1차항만을 포함한 모형과 2차항을 함께 포함한 모형의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두 모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FI_{ij} = \alpha + \beta_1(famval) + \beta_2(controls) + u_i + e_{ij} \quad \dots (4)$$

수식 (4)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을 나타낸다. FI_{ij} 는 종속변수인 출산 의향의 로그 승산을 나타내며, 이는 이항변수다. β_1 은 설명변수인 가족가치관의 계수를, β_2 는 통제변수들의 계수를 나타낸다. u_i 는 개체의 고유 특성이며, e_{ij} 는 개체 고유 오차항이다. 오차항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또한 출산 의향을 묻는 문항은 만 49세 이하의 기혼 여성들에 한해서 응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 대상은 이에 해당하는 패널개체 2,983명(사례수 12,359개)임을 밝힌다. 패널 분석의 경우 종단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종종 권장되나,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활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가중치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에서는 지역, 연령, 성별 정보를 활용한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사차수가 진행될수록 가중치의 분산증가효과가 증가하며 특정 층에서 가중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주재선 외, 2020). 또한 6차 조사 이후에는 신규 패널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고려한 통합 종단면 가중치가 현재로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모집단에 대한 확장 및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내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이제 앞서 논의한 분석 모형에서 활용한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성장곡선모형의 종속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생성한 가족가치관 잠재변수(요인점수)이며, 설명변수는 조사차수, 교육수준, 출생코호트이다. 조사차수의 경우 3-8에 해당하는 정수인데, 계수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시작점이 0이 되도록 각 값에서 3씩 감해주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의 4개의 응답범주를 가지는 범주형 변수로, 조사기간 중 최대치를 각 응답자에 고정하여 최종학력의 의미를 가지는 시불변변수로 활용하였다. 출생코호트의 경우 자료의 분포 및 ‘_0년대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구성하였다. 즉, 1942-1991의 값을 가지는 출생년도 변수를 ‘1942-1949(40년대생)’, ‘1950-1959(50년대생)’, ‘1960-1969(60년대생)’, ‘1970-1979(70년대생)’, ‘1980-1991(80년대 이후생)’으로 나누어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범주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때 90년과 91년생의 경우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80년대생들과 같은 범주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소득, 고용 여부, 결혼 상태, 출산 경험이 포함되었다. 소득은 응답자의 가구소득을 8분위로 나눈 변수를 활용하였다. 고용 여부는 ‘비고용(0)’, ‘고용(1)’의 값을 가지는 이분변수이다. 결혼 상태는 ‘미혼(0)’, ‘기혼(1)’, ‘이혼/별거/사별(2)’의 세 가지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이며, 출산 경험은 ‘없음(0)’, ‘있음(1)’의 값을 가지는 이분변수이다.

<표 2>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통계량/응답범주*	overall	between	within
출생년도	mean	1962.9		
	std. dev.	11.4	11.4	0
	min	1942	1942	1962.9
	max	1991	1991	1962.9
		1942-1949	15.9	100
출생코호트	1950-1959	25.0	100	
	1960-1969	26.4	100	

	1970-1979	26.0	100
	1980-1991	6.7	1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1	100
	고등학교	34.9	100
	대학교	27.2	100
	대학원 이상	1.8	100
소득 (가구소득 8분위 수)	mean	4.2	
	std. dev.	2.3	1.9
	min	1	1
	max	8	8
고용 여부	비고용	41.8	65.0
	고용	58.2	77.4
결혼 상태	미혼	4.6	5.9
	기혼	81.0	86.0
	이혼/별거/사별	14.4	19.2
출산 경험	없음	98.1	100.0
	있음	1.9	7.9
출산 의향**	없다/모르겠다	96.5	99.5
	있다	3.5	9.7
주택점유형태	자가	77.4	88.7
	전세	10.2	22.9
	월세	8.4	15.3
	무상/기타	4.0	8.3
성 역할 분리규범	매우 비동의	8.5	33.4
	동의	40.6	88.6
	동의	40.2	87.9
	매우 동의	10.8	37.2
일하는 어머니의 부정적 영향	매우 비동의	4.2	19.8
	비동의	35.5	87.1
	동의	50.7	95.9
	매우 동의	9.6	34.1

* 범주형 변수의 경우, 수치는 각 응답범주의 분포(%)를 나타냄

** 만 49세 이하의 기혼 여성 응답자 12,362명 대상

다음으로,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의 변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종속변수는 출산 의향으로 기존에 ‘없다’, ‘모르겠다’, ‘있다’의 응답범주를 가지는 변수를 ‘없다/모르겠다(0)’, ‘있다(1)’로 이분변수 처리하여 로짓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명변수는 요인분석으로 생성한 가족가치관 잠재변수이다. 통제변수는 모델 1의 경우 조사차수, 출생년도, 교육수준, 소득, 고용 여부, 출산 경험이며, 모델 2의 경우 여기에 더해 출산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택점유형태와 성 역할 분리규범,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1)’, ‘전세(2)’, ‘월세(3)’, ‘무상/기타(4)’의 네 가지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이다. 성 역할 분리 규범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문항을 토대로,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문항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두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1)’, ‘조금 그렇다(2)’, ‘별로 그렇지 않다(3)’,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가족가치관 변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가 전통적 가치관을 지시하도록 역코딩 처리하였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출산 의향의 경우 만 49세 이하의 기혼

여성들의 응답만이 존재하므로 패널 개체 및 사례수가 각 2,983명, 12,359개로 감소한다. <표 2>는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나타낸다. 모든 수치들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

첫 번째 분석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을 변수화하였다. <표 3>은 요인분석에 활용된 10개의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단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빈도분포표를 제시하였다. ‘overall’은 패널 데이터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계산한 값을, ‘between’은 패널개체 간 특성을 고려한 값을, ‘within’은 패널개체 내 값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시점 j 에서 패널개체 i 의 값을 X_{ij} , 개체 내 평균을 \bar{X}_i , 전체 관측치의 평균을 \bar{X} 라고 할 때, ‘between’ 기초통계량은 \bar{X}_i 들의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within’ 기초통계량은 $(X_i - \bar{X}_i + \bar{X})$ 의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³⁾

<표 3> 가족가치관 문항들의 기초통계

No.	문항내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결혼 필수	overall	2.201	0.822	1.000	4.000
		between		0.552	1.000	4.000
		within		0.608	-0.299	4.701
2	결혼은 일찍	overall	2.511	0.783	1.000	4.000
		between		0.499	1.000	4.000
		within		0.604	0.011	5.011
3	자녀는 일찍	overall	2.084	0.744	1.000	4.000
		between		0.450	1.000	3.833
		within		0.593	-0.083	4.584
4	자녀 필수	overall	1.931	0.765	1.000	4.000
		between		0.480	1.000	3.833
		within		0.595	-0.402	4.431
5	결혼 없이 성관계 가능	overall	2.866	0.789	1.000	4.000
		between		0.481	1.167	4.000
		within		0.626	0.366	5.366
6	결혼 없이 동거 가능	overall	3.050	0.807	1.000	4.000
		between		0.488	1.167	4.000
		within		0.642	0.550	5.217
7	결혼 없이	overall	3.273	0.754	1.000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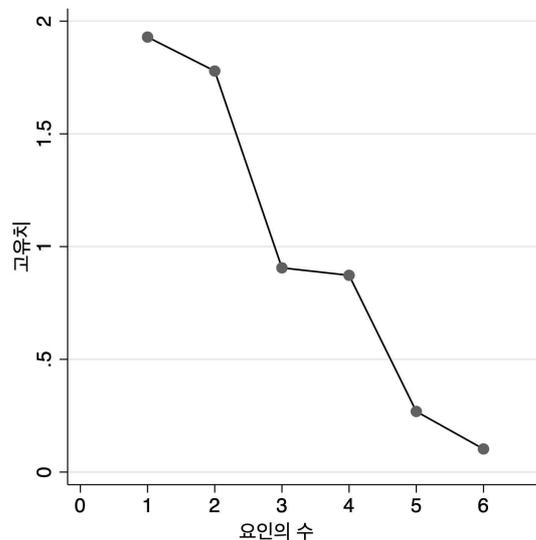
3) 어떤 개체든 $(X_i - \bar{X}_i)$ 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Stata에서는 ‘within’ 통계량을 계산할 때 $(X_i - \bar{X}_i + \bar{X})$ 를 활용한다(민인식 · 최필선, 2022: 55).

	출산/육아 가능	between		0.465	1.667	4.000
		within		0.594	0.773	5.607
8	결혼보다는 나의 성취	overall	2.597	0.742	1.000	4.000
		between		0.446	1.000	4.000
		within		0.593	0.264	5.097
9	결혼을 하면 내 생활 구속	overall	2.233	0.714	1.000	4.000
		between		0.432	1.000	3.833
		within		0.568	-0.100	4.733
10	부부의 성적 만족 중요	overall	2.117	0.645	1.000	4.000
		between		0.372	1.000	3.500
		within		0.527	0.117	4.617

주: 모든 문항의 사례수는 32,411개, 패널개체수는 5,402개이며, 관측시점은 6개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그림 1]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은 요인의 수에 따른 고유치를 나타내는 스크리도표(screplot)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 적절한 요인의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 스크리도표



수는 고유치가 1이 넘는지(Kaiser, 1960)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SPSS 등 통계패키지의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등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여러 비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Hayton et al., 2004) 스크리도표를 참조하는 방식이 Cattell(1966)에 의해 제안되어 앞선 기준과 함께 통용되고 있다. 스크리도표에서는 선이 꺾이는 지점, 다시 말해 고유치가 급격히 낮아져 안정화되는 지점에서의 요인의 개수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1]의 스크리도표의 선은 요인의 수가 3일 때 꺾이는 모습을 보여 적절한 요인의 개수가 세 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참조해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요인의 개수를 세 개로 판단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적재량과 유일성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유일성
1	0.668			0.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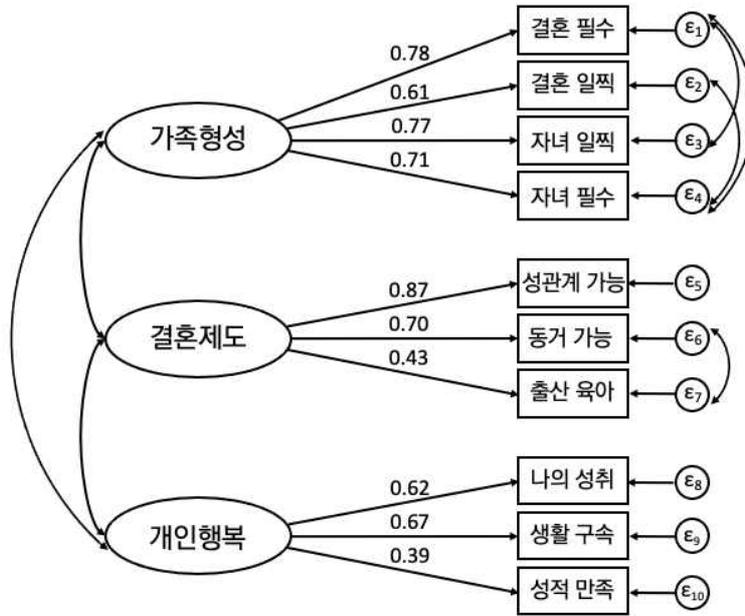
2	0.649	0.591
3	0.730	0.456
4	0.667	0.509
5	0.614	0.538
6	0.920	0.168
7	0.669	0.582
8	0.502	0.659
9	0.755	0.445
10	0.438	0.778

주: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0.4 이상인 경우에만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표 4>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요인 축을 회전시킨 뒤의 문항의 요인별 적재량과 유일성(uniqueness) 수치를 나타낸다. 요인 적재량은 0.4 이상인 경우에만 표기하였다. 문항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볼 때, ‘결혼’에 대한 문항 1-2와 ‘자녀’에 관한 문항 3-4가 요인 1에 대해 높은 적재량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문항 5-7은 요인 2에 대해 높은 적재량을, ‘개인의 행복과 결혼’에 대한 문항 8-10은 요인 3에 대해 높은 적재량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문항들의 유일성은 0.8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가족가치관 문항들이 세 가지 잠재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세 가지 가족가치관 잠재 변수를 예측하였다. 즉, 문항 1-4는 첫 번째 요인으로, 문항 5-7은 두 번째 요인으로, 문항 8-10은 세 번째 요인으로 설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 모두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의 경우, RMSEA가 0.074로 0.8보다 낮았으며(p-value 0.000), CFI는 0.941, TLI는 0.901로 모두 0.9보다 높았다.

[그림 2]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타원은 잠재 변수를, 직사각형은 관측 변수를, 화살표에 쓰인 숫자는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ϵ 는 오차를 나타낸다. 모형 좌측의 화살표에서 알 수 있듯, 가족가치관 잠재 변수들 간에는 공분산이 허용된다. 또한 연관이 높은 몇몇 오차항들 사이에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태도를 지시한다. 먼저 첫 번째 잠재 변수는 결혼과 자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결혼은 반드시, 일찍 해야 하며 자녀 역시 반드시, 일찍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수록 이 변수의 점수가 높다. 따라서 이를 ‘가족형성’이라 부른다. 두 번째 잠재 변수는 결혼의 제도적 (불)필요성에 관한 문항들로 예측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관계, 동거,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반대할수록 이 변수의 점수가 높다. 다르게 말하면 이는 성관계, 동거,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변수를 ‘결혼제도’라 칭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개인의 행복과 결혼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문항들로 예측되었으므로 ‘개인행복’이라고 부를 것이다. 결혼보다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고, 결혼을 하면 자신의 생활이 구속되고,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에 반대할수록 이 변수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가족가치관 잠재 변수



에 대한 점수가 높다. 즉, 이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결혼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리하자면, 10개의 가족가치관 문항을 활용한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의 세 가지 잠재 변수로 요약된다.

2. 교육수준별 가족가치관의 시계열 변화

두 번째 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의 시계열 변화와 그 영향 요인을 성장곡선모형을 통해 추적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가족가치관 문항들의 응답 변화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표 5>는 가족가치관 문항의 평균점수 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결혼에 대한 문항 1-2를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항 1의 평균은 2010년 2.15에서 2020년 2.3으로 10년간 약간 높아졌으며,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 2의 평균은 2.48-2.54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씩 늘어난 데 반해,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관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문항 3-4를 보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는 문항 3의 평균은 2010년 2.01에서 2020년 2.18로 높아졌으며,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문항 4의 평균도 2010년 1.82에서 2020년 2.04로 증가하였다. 즉, 자녀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응답은 지난 10년간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의 (불)필요성에 대한 문항 5-7의 경우, 세 문항 모두 점수가 감소하였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문항 5의 평균은 2010년 2.99에서 2020년 2.72로 감소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는 문항 6의 평균도 2010년 3.11에서 2020년 2.92로 낮아졌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관계와 동거에 대한 반대의 태도는 지난 10년 동안 조금 완화되었다. 한편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문항 7의 평균도 2010년 3.33에서 2020년 3.18로 감소하긴 하였으나, 세 문항 중에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높아 혼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가족가치관 문항의 평균점수 변화

No.	문항내용	년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15	2.15	2.14	2.20	2.26	2.30
2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	2.54	2.48	2.48	2.52	2.54	2.51
3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	2.01	2.01	2.05	2.08	2.17	2.18
4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82	1.85	1.88	1.94	2.06	2.04
5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2.99	2.95	2.90	2.88	2.76	2.72
6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	3.11	3.11	3.12	3.08	2.96	2.92
7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3.33	3.31	3.29	3.29	3.18	3.18
8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2.66	2.61	2.61	2.61	2.55	2.55
9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 받는다	2.23	2.23	2.26	2.23	2.21	2.24
10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	2.12	2.08	2.11	2.15	2.12	2.13

마지막으로 결혼 관계와 개인의 행복·만족에 대한 문항 8-10을 보면, 점수가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하게 유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문항 8의 평균은 2010년 2.66에서 2020년 2.55로 조금씩 감소하였다. 즉, 지난 10년 동안 결혼보다 자신의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하면 나 자신의 생활이 구속받는다’는 문항 9의 평균은 2.21-2.24 범위에서,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은 중요하다’는 문항 10의 평균은 2.08-2.13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즉, 결혼이 부과하는 자율성의 제약과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는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장곡선모형을 통해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과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표 6>은 다층모형으로 구현한 성장곡선모형의 결과표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앞서 1절에서 생성한 가족가치관의 세 가지 잠재변수인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치관을 나타낸다. ‘가족형성’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일찍 형성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이며, ‘결혼제도’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개인행복’ 변수

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자율, 성취, 만족보다 결혼 관계를 더 중시한다. 설명변수는 교육수준이며, 시간 변수로는 조사차수의 1, 2차항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교육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 ‘중학교 이하’에 비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다닌 여성들은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 세 영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탈(脫)전통적 태도를 보였다. 즉,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향을 가지고, 결혼 제도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며,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한편 ‘대학원’의 경우, 개인행복에 있어서만 비전통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여성들에 비해 대학원을 다닌 여성들은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표 6>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영향 요인: 성장곡선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족형성 coefficient (s.e.)		결혼제도 coefficient (s.e.)		개인행복 coefficient (s.e.)	
<i>Fixed Parts</i>						
교육수준 (ref=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33***	(0.020)	-0.123***	(0.019)	-0.157***	(0.021)
대학교	-0.124***	(0.023)	-0.151***	(0.021)	-0.193***	(0.023)
대학원	-0.032	(0.059)	-0.079	(0.055)	-0.259***	(0.061)
조사차수	-0.025*	(0.010)	-0.040***	(0.009)	-0.037***	(0.011)
조사차수x조사차수	0.001	(0.002)	-0.004*	(0.002)	-0.001	(0.002)
교육x조사차수						
고등학교	0.018	(0.014)	0.043**	(0.013)	0.058***	(0.015)
대학교	0.030*	(0.015)	0.065***	(0.014)	0.101***	(0.016)
대학원	0.013	(0.045)	0.079	(0.042)	0.197***	(0.049)
교육x조사차수x조사차수						
고등학교	-0.007**	(0.003)	-0.003	(0.002)	-0.006*	(0.003)
대학교	-0.014***	(0.003)	-0.007*	(0.003)	-0.015***	(0.003)
대학원	-0.010	(0.009)	-0.008	(0.008)	-0.029**	(0.009)
출생코호트 (ref=1960-1969)						
1942-1949	0.368***	(0.020)	0.185***	(0.018)	0.145***	(0.019)
1950-1959	0.207***	(0.017)	0.115***	(0.015)	0.064***	(0.016)
1970-1979	-0.053***	(0.015)	-0.113***	(0.013)	-0.058***	(0.014)
1980-1991	0.013	(0.026)	-0.177***	(0.024)	-0.052*	(0.025)
소득						
고용여부 (고용=1)	0.007**	(0.002)	-0.003	(0.002)	-0.002	(0.002)
결혼상태 (ref=기혼)	-0.004	(0.008)	-0.027***	(0.008)	-0.055***	(0.008)
미혼	-0.419***	(0.026)	-0.097***	(0.024)	-0.249***	(0.026)
이혼/별거/사별	-0.117***	(0.014)	-0.058***	(0.013)	-0.042**	(0.014)
출산경험 (1=있음)	0.058*	(0.024)	-0.017	(0.022)	0.039	(0.025)
<i>Random Parts</i>						
var(조사차수)	0.026	(0.004)	0.019	(0.004)	0.028	(0.005)
var(조사차수x조사차수)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var(상수)	0.121	(0.006)	0.094	(0.005)	0.107	(0.007)

LR χ^2	4902.94	4147.78	3299.13
N of observation		32,406	
N of panel groups		5,401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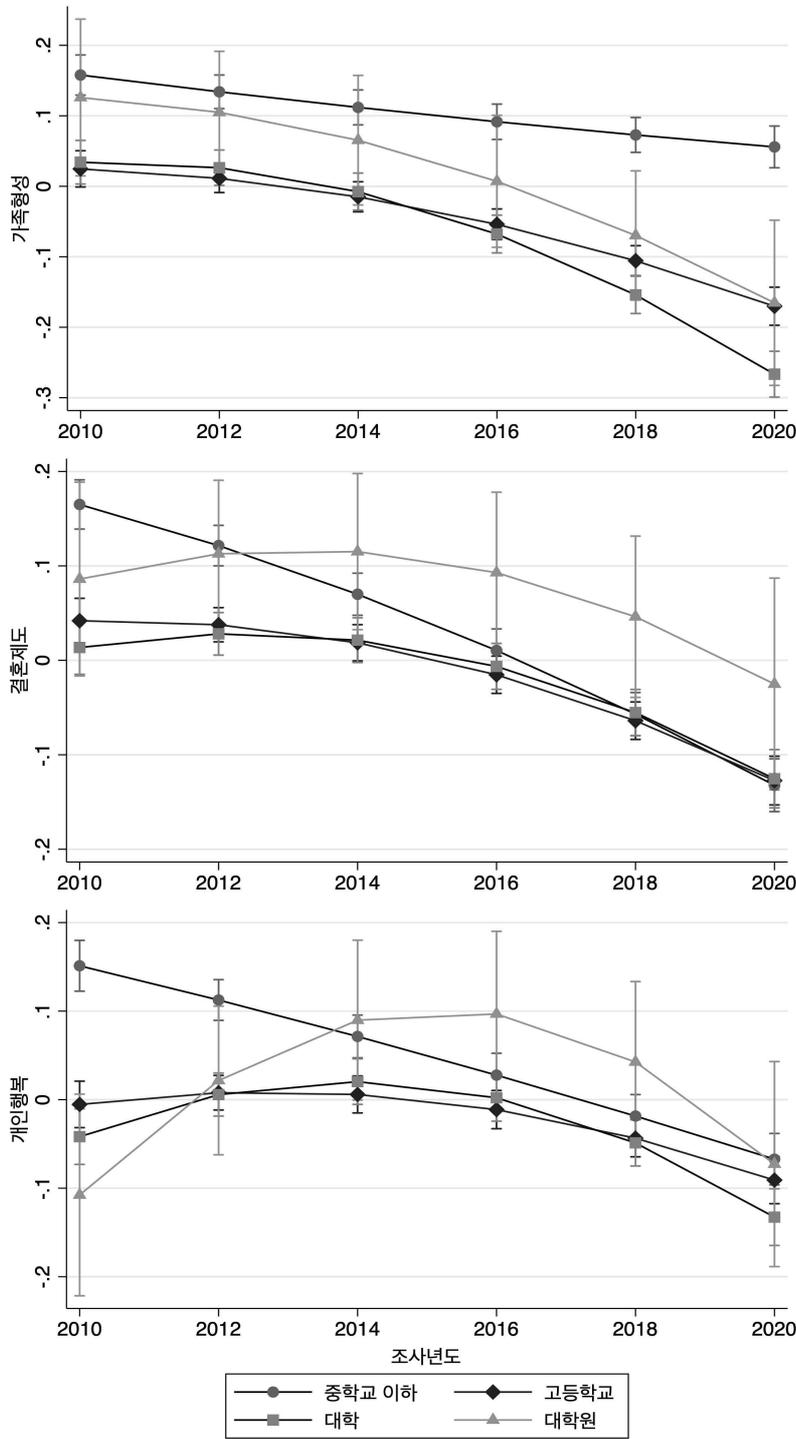
출생코호트와 조사차수 역시 가족가치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출생코호트의 경우, 기준인 60년대생들보다 먼저 태어난 집단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나중에 태어난 집단이 상대적으로 탈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세 가지 가족가치관 변수들에 대해 거의 모든 경우에서 강한 통계적 상관을 보였다. 40년대생들과 50년대생들은 가족 형성과 결혼제도의 필요성을 모두 높게 인식했으며,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행복을 앞세우는 경향은 낮았다. 반면 70년대생들과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대체로 가족의 형성과 결혼제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조사차수의 경우,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가족가치관이 탈전통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 세 변수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그 강도는 결혼제도와 개인행복의 경우 특히 강했다. 이밖에 소득, 고용 여부, 출산경험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자의 가족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을 통해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에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차수가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은 교육 수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족형성과 관련한 가족가치관의 경우 ‘중학교 이하’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경험한 여성들이 탈전통적 가치관으로의 더욱 가파른 이행 패턴을 보였다. 결혼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확인되었다. 개인행복의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집단의 가족가치관 변화 궤적이 기준인 ‘중학교 이하’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조사차수는 해당 조사가 이루어진 연도로 표기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경우들에 한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상단의 그래프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라는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모든 집단의 변화 궤적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과거에 비해 전통적 가족형성에 덜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 수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이하’ 집단은 모든 조사차수를 통틀어 가장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며, 변화의 폭도 가장 작다. 이와 대비해 ‘고등학교’ 집단은 시작 지점인 2010년의 가치관도 상대적으로 덜 전통적인 데다가 조사차수를 거듭하며 더욱 탈전통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학교’ 집단은 ‘고등학교’ 집단과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해 탈전통적 가치관으로 더 가파르게 이행하였다. 즉, 지난 10년 동안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가족형성 가치관은 큰 변화 없이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과 시기적 조건을 덜 인식하는 방향으로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의 그래프는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앞선 그

[그림 3] 교육수준별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



래프에서 가장 미미한 변화를 보였던 ‘중학교 이하’ 집단이 이번에는 가장 가파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2010년 결혼의 제도적 필요에 대해 어느 집단보다 강하게 공감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그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집단이 되었다. 이와 달리 ‘고등학교’ 집단은 2010년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에서 시작하여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대학교’ 집단도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에서 시작하여 2012년까지 약간 높아졌다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는 변화 패턴을 나타낸

다. 세 집단 모두 2014년 이후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그래프는 결혼과 개인의 행복의 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자율, 성취보다 결혼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지시한다. 첫 번째 그래프의 가족형성 변수의 경우처럼, ‘중학교 이하’ 집단의 태도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가장 전통적이지만, 변화의 폭은 앞의 경우에 비해 컸다. 가족의 형성과 관련한 ‘중학교 이하’ 집단의 가치관은 2020년에도 타 집단들과 차이가 클 정도로 일관된 전통성을 보였다면, 개인행복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타 집단들과 가까워졌다. 또한 개인행복 관련 가족가치관에 있어서는 ‘대학원’ 집단의 변화가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2010년 결혼보다는 개인의 자율, 성취를 어느 집단보다 가장 중시하였는데, 2016년까지 그와 반대되는 태도로 급히 이행하다가 2018년 다시 방향을 틀어 2020년 타 집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집단의 경우 2014년까지는 결혼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변화하다가 2016년부터는 경향이 반전되어 개인의 만족, 성취보다 결혼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정도가 처음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지는 변화 패턴을 보였다. 두 집단 중에는 ‘대학교’ 집단의 변화선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조금 더 낮게 위치해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상대적 경향이 조금 더 강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즉, 가설 1-1에서 예상했듯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탈전통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족가치관 문항의 평균점수 변화를 확인했을 때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동의 정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로 낮아졌으며, 성장곡선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도 조사차수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가족가치관이 탈전통화되는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교육수준에 따라 체계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2 역시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 세 영역 모두에 있어 상대적으로 탈(脫)전통적 가족가치관을 보였다. 즉, 여성의 고등교육은 가족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의 지지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 역시 교육수준에 따른 체계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3 역시 확인되었으나, 그 양상은 가족가치관의 세부 영역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는 여성들은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가장 미미한 탈전통화 양상을 보였지만,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보다 더 급격하게 탈전통화되었고,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도 변화의 크기가 비교적 컸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닌 여성들의 경우 가족형성과 관련한 가치관이 급격히 탈전통화된 데 반해 결혼제도와 개인행복에 대한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가족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빠른 탈전통화 양상을 보이면서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결혼보다 개인의 성취, 만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은 시작 지점부터 상대적으로 강해 시간 흐름에 따른 탈전통화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여성들의 고등교육이 시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추동하는 정도는 가치관의 세부 영역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는 특히 가족형성의 필요성과 시기와 관련하여 두드러졌다.

3. 가족가치관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분석에서는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 확률효과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 의향은 ‘있다’와 ‘없다’의 두 가지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며, 설명변수는 요인변수를 통해 생성한 세 가지 가족가치관 잠재변수이다. 통제변수의 종류에 따라 모델 1과 모델 2가 다르게 구성되었다. 모델 1에는 조사차수, 출생년도, 교육 수준, 소득, 고용 여부와 출산 경험이 통제변수로 투입되었고, 모델 2에는 여기에 주택점유형태와 두 가지 성 역할 관련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출산 의향 문항의 경우, 만 49세 이하의 기혼 여성들의 응답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 대상은 총 2,938명의 기혼 여성들에 대한 12,360개의 관측치이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결과는 승산비(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 여성들에게서 가족가치관에 따른 출산 의향이 체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7> 가족가치관과 출산 의향: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odds ratio (s.e.)		odds ratio (s.e.)	
가족형성	1.606**	(0.247)	1.638**	(0.255)
결혼제도	0.627**	(0.103)	0.634**	(0.104)
개인행복	1.144	(0.175)	1.134	(0.174)
조사차수	0.316***	(0.028)	0.324***	(0.029)
출생년도	1.663***	(0.065)	1.644***	(0.063)
교육수준 (ref=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0.783	(0.879)	0.967	(1.065)
대학교	2.727***	(0.730)	2.625***	(0.700)
대학원	11.626***	(6.664)	10.695***	(6.085)
소득	0.879*	(0.050)	0.880*	(0.051)
고용여부 (고용=1)	1.502*	(0.290)	1.449*	(0.283)
출산경험 (있음=1)	2.442***	(0.462)	2.483***	(0.472)
주택점유형태 (ref=자가)				
전세			1.924**	(0.411)
월세			0.865	(0.316)
무상/기타			1.604	(0.627)
성 역할 분리규범			0.860	(0.099)
일 하는 어머니의 영향			0.975	(0.119)

LL	-1120.041	-1113.526
rho	0.679	0.674
LR χ^2 of rho	246.18	238.50
N of observation		12,359
N of panel groups		2,983

주: * p<.05, ** p<.01, *** p<.001.

그런데 그 관계의 방향성은 혼합되어 나타났다.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가족형성과 출산 의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결혼제도와 출산 의향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자녀 출산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전통적 태도를 가질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데 반해,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전통적(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출산 의향이 낮았다. 한편 개인행복의 경우 출산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가치관의 세부적 내용에 따라 출산 의향에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을 반드시, 일찍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수록 향후에 자녀 계획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 그런데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대할수록 향후 자녀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보다 주의 깊은 해석을 요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형성 일반에 대한 태도와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이 가족 실천에 있어 다른 함의를 가짐을 보여 준다. 결혼 제도에 있어서는 그 규범적 필요성에 대해 덜 공감하는 것이 오히려 재생산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만들어 자녀 출산 계획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출생년도와 조사차수 역시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년도가 높아질수록, 다시 말해 더 최근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여성일수록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조사차수의 경우 높아질수록 출산 의향이 낮아졌다. 조사차수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므로,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혼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점점 더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연령에 따른 효과(age effect)와 시기의 효과(period effect)를 포괄한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시간성을 내포하는 개념인 연령, 시기, 코호트는 ‘연령=기간-코호트’라는 선형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식별(identification)’의 문제가 발생하며(이지연·김소현, 2010),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학술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Fosse & Winship, 2019).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출생년도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사차수와 함께 통제변수에 포함하여 코호트의 효과를 분리해내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조사차수가 나타내는 ‘시간의 흐름’이 연령의 효과인지 시기의 효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기는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시간적 범위인 2010-2020년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이 1.22명에서 0.84명으로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제도적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 효과보다는 시기 효과에 무게를 두어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즉,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 흐름의 변화는 한국의 여성들의 출산 의향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교육수준 역시 기혼 여성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준인 ‘고등학교’ 집단에 비해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교육 수준을 가지는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닌 기혼 여성들에 비해 대학교

혹은 대학원까지 다닌 기혼 여성들이 더 높은 출산 의향을 드러냈다. 한편 ‘고등학교’ 집단과 ‘중학교 이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높은 교육수준이 출산 의향에 대해서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대학 이상의 교육에 한해서만 관찰되었다.⁴⁾ 한편 소득의 경우, 출산 의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소득 분위가 높은 기혼 여성일수록 출산 의향이 낮았다. 이와 달리 고용 여부는 출산 의향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즉, 고용이 된 기혼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기혼 여성들에 비해 출산 의향이 높았다. 또한 여성들의 과거 출산 경험은 미래의 출산 의향과 관련이 있었다. 출산 경험이 없는 무자녀 기혼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출산 경험이 있는 유자녀 기혼 여성들의 출산 의향이 더 높았다. 미래의 출산 의향이 단순히 출산 경험 유무뿐만 아니라 횟수에도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연속변수로 처리된 자녀의 수를 가지고 동일한 분석을 시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기존의 출산 경험이 있을수록(많을수록) 미래의 출산 의향이 높았다.

이밖에도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주택점유형태와 성 역할 관련 변수 두 가지를 모델 2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택점유형태의 경우, 기준인 ‘자가’에 비해 ‘전세’ 집단의 출산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관련 변수로는 전통적 역할분업, 그리고 미취학 자녀에 대한 일하는 어머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출산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 역할분업에 대한 동의 정도나, 미취학 자녀를 둔 주부의 노동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는 그들의 자녀 출산 의향과 체계적인 연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분석을 통해 일부 확인되었다. 개인행복 변수를 제외하고 가족형성, 결혼제도는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출산 의향과 체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가족가치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1 역시 지지되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출산 의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전통적(부정적) 태도는 부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는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어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홍성희, 2020; 임병인·서혜림, 2021)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전통적’ 혹은 ‘탈전통적’ 가치관이 단일한 태도 혹은 실천을 낳지 않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자녀 출산 계획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가족 변동이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 변화를 추적하고 나아가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3-8차 웨이브(2010-2020)를 활용하여 다음 세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가치관 잠

4) 기준을 ‘중학교 이하’로 바꾸어 확인했을 때는, ‘대학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기혼 여성들에 비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 여성들이 더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다.

재변수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성장곡선모형을 통해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과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가족가치관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로짓 확률효과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가족형성’, ‘결혼제도’, ‘개인행복’의 세 가지 변수로 요약될 수 있다. ‘가족형성’은 결혼과 출산을 반드시, 일찍 해야 한다는 믿음을 나타내며, ‘결혼제도’는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을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개인행복’은 자신의 성취, 행복보다 결혼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둘째,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탈전통화되었다. 조사차수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은 교육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닌 여성들은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지향을 가지고, 결혼 제도의 불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또한 대학원을 다닌 여성들도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 관계보다 개인의 자율과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넷째, 시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궤적 역시 교육수준에 따른 체계적 차이를 보였고, 그 양상은 가족가치관의 세부 영역에 따라 혼합되어 나타났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세 가지 변수에 대해 모두 완만한 감소의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은 가족형성에 있어서는 전통적 태도를 고수했지만, 결혼제도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대학원을 다닌 여성들은 2016년까지는 개인의 행복, 성취보다 결혼관계를 더 중시하다가 그 이후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급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양상은 가족가치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랐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출산 의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동거, 성관계,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결혼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태도는 출산 의향에 부정적으로 기여했다. 다시 말해,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위해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수록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탈전통화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근대화와 함께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다(은기수, 2014). 구체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은 낮게(배혜원, 2017), 가족 내 자율성과 평등성은 높게(유계숙 외, 2018)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도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며 성 평등적 관점을 지지하는 변화된 가치관이 확인되었다(박종서 외,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가치관이 전통적 관점에서 점점 더 멀어져 과거에 비해 가족의 가치에는 덜 공감하고, 개인의 자율, 평등 그리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가치관의 탈전통화가 단일한 방향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가치관이 세 차원으로 분류되며, 각 차원마다 변화의 양상이 달랐다는 것은 가족가치관에 대한 단선적 이해가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족가치관 내부의 이질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가족과 성 역할을 둘러싼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와 혼재를 모두 내포하며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문선희, 2012; 이민아,

2013; 허은, 2017; 미사에, 2021). 즉, 가족에 대한 가치에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이 차원들의 시간적 변화 역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특기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가치관 내부의 이질성은 가족가치관을 전통 혹은 탈전통의 단순한 틀로 이해하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족을 둘러싼 태도와 실천은 사회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적 대응으로, 단순히 ‘탈전통화’ 되었다기보다는 현실 사회의 복합적인 상황 및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탈전통’은 오늘날 한국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이 과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개념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가족가치관의 복합적 성격과 내부의 이질성은 가족에 대한 향후의 연구에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가치관과 그 변화 궤적이 교육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교육이 가족 변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생애과정 접근에 따르자면, 교육은 하나의 전환(transition)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개인의 생애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는 교육이라는 사건은 교육기간이 끝난 이후의 생애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장기간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태도의 영향과, 사회적 지위 획득 기제로서 교육 자본이 행사하는 영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 결과일 것이다. 일례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은 결혼, 출산을 반드시, 일찍 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10년 동안 가장 높게 유지했으면서도 결혼 제도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보다 빠르게 공감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여성들이 신념체계에 있어서는 전통적 태도를 지향하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처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제도에 대한 태도는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가치관의 변화 역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가치관에 따라 출산 의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저출산에 대응하는 일련의 노력이 가족가치관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결혼의 제도적 필요성에 덜 공감하는 것이 높은 출산 의향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가족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출산 의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출산과 양육이 결혼이라는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고, 그 틀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은 한국 사회의 상황은 오히려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현실적, 인지적 부담을 높여 출산 의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와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그 빈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은기수, 2014). 개인의 일생에서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더 줄어들고,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개인의 친밀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실천을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가족으로부터의 탈주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동거, 성관계, 자녀 출산과 양육이 꼭 결혼이라는 제도적 굴레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미래에 자녀를 가질 계획을 더 많이 가졌던 이 연구의 분석결과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천에 대한 사회적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구성원들의 가족 형성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균형패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출생코호트(92년 이후)가 다수 유실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20대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남는다. 가족가치관에서는 세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최근의 출생코호트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출산 의향에 대한 분석에서 기혼 여성만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결혼 제도 바깥에 있는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인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출산 의향을 기혼 여성들에 한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사회조사는 이처럼 출산 행태에 결혼을 관습적으로 전제해 완전한 자료 구축에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재생산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자녀를 가질 의향을 묻는 경향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⁵⁾ 결혼 제도의 보편성이 점차 줄어들고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기혼 여성과 더불어 미혼 또는 비혼 여성들의 출산 의향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출산 의향 분석에서 활용한 기혼 여성 표본의 출산 경험이 2% 미만으로 매우 낮아, 실제 현실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6차 웨이브에서는 신규 패널이 추가되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균형패널을 활용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출산 경험이 미래 출산 의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한계에도, 이 연구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종단 분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한국 사회의 가족 변동에 대한 완결적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5) 일례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결혼-임신-출산을 연속된 생애경로로 전제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났으며,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을 한 표본에 포함하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응답자들의 출산 의향을 조사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학지사.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산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학석사학위논문.
- 김경자 (2016) “기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가치관과 가족가치관” 《여성연구논총》 19: 65-87.
- 김석호 (2022)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누가, 왜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가?” 《조사연구》 23(2): 1-33.
- 김영란·주재선·정가원·배호중·선보영·최진희·김수진·이진숙 (2021) “2020년 가족실태 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이선·박경숙 (2019) “한국 여성의 생애: 갈등적 성별화와 계층화” 《경제와사회》: 138-170.
- 김혜경·정진성 (2001)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식민지 시기 새로운 가족개념의 도입과 변형” 《한국사회학》 35(4): 213-244.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미사에, 사사노 (2021)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서울대학교 사회학박사학위논문.
- 민인식·최필선 (2021) 《STATA 고급통계분석》 지필미디어.
- 민인식·최필선 (2022) 《STATA 패널데이터분석》 지필미디어.
- 박경숙 (2022) “인구동태와 호정(戶政): 조선시대 호총(戶總)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사회와역사》 133: 7-82.
- 박경숙·김영혜 (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 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선영·이혜정·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층의 교차”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_____ (2012)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 배혜원 (2017)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7(9): 86-100.
- 신윤정·이명진·전광희·문승현 (2020) “출산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현아 (2000)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1: 시간 의식의 실종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58: 35-72.
- 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은기수 (2014) “인구와 가족: 가족의 인구학적 접근”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 은기수 ·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47(2): 143-176.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소영 · 김은정 · 박종서 · 변수정 · 오미애 · 이상림 ·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석 · 김필숙 · 심규석 (2016)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연 · 김소현 (2010)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1983- 2003” 《한국사회학》 44(4): 63-94.
- 임병인 · 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
- 임재연 (2021) “한국 청년세대의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족가치관 유형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4): 47-74.
-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한국학》 24(2): 161-202.
- 장경섭 (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전광희 (2003) “한국의 출산력 변천: 추이와 예측” 《통계연구》 8(1): 33-58.
- 주재선 · 이동선 · 송치선 · 박건표 · 이진숙 · 박송이 · 임연규 · 양준영 · 손창균 (2020) “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정 ·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선영 · 장경섭 (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5: 173-203.
- 통계청 (2022) “2021년 혼인 · 이혼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 허은 (2017) “개인화와 성별분업: 패널 자료를 이용한 가족형성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 분석” 《한국사회학》 51(4): 47-78.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 홍성희 (2020) “남녀의 출산의향, 출산 희망연령과 계획 자녀수의 영향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2): 69-87.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5-276.

- Clark, T. S. & Linzer, D. A. (2015) "Should I use fixed or random effec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3(2), 399-408.
- Cleland, J., Machiyama, K., & Casterline, J. B. (2020) "Fertility preferences and subsequent childbearing in Africa and Asia: A synthesis of evidence from longitudinal studies in 28 populations" *Population Studies* 74(1): 1-21.
- Choe, M. K. (2006) "Modernization, Gender Roles, and Marriage Behavior in South Korea" in *Transformation in Twentieth Century Korea* (pp. 305-323) London: Routledge.
- Choi, S., Yellow Horse, A. J., & Yang, T. (2018) "Family policies and working women's fertility intentions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4(3): 251-270.
- Elder, G. H., Johnson, M. K., & Crosnoe, R. (200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3-19) Boston, MA: Springer.
- Fosse, E., & Winship, C. (2019) "Analyzing age-period-cohort data: A review and critiqu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5: 467-492.
- Glenn, N. D. (2003) "Distinguishing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465-476) Boston, MA: Springer.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91-205.
- Jones, G. 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 Kim, E. & Parish, S. L. (2020) "Family supportive workplace policies and benefits and fertility intentions in South Korea" *Community, Work & Family*: 1-28.
- Miller, W., Severy, L., & Pasta, D. (2004) "A framework for modelling fertility motivation in couples" *Population studies* 58(2): 193-205.
- Yeatman, S., Sennott, C., & Culpepper, S. (2013) "Young women's dynamic family size preferences in the context of transitioning fertility" *Demography* 50(5): 1715-1737.
- Yi, J., Jung, H., Kim, H., & Im, E. (2020) "Trends in Female Workers' Childbearing Intentions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2(5): 242-249.